

『傷寒論』 '虛'에 대한 고찰 : 辨病診斷體系를 통한 梔子豉湯 증례 2례에 근거하여

최운용¹ 이성준^{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 성남한의원¹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46길 5-6 압구정정인한의원^{2*}

A Conceptual Study 'Heo(虛)' in *Shanghanlun* : Based on 2 Cases Treated by Chijasi-tang

Woon-yong Choi¹, Sung-jun Lee^{2*}

207,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¹
 5-6, Apgujeong-ro 4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2*}

Objective :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虛 in *Shanghanlun* through two cases.

Methods : We analyzed the original form of 虛 and the contexts in *Shanghanlun*. At the same time, we analyzed 2 clinical cases treated with Chijasi-tang according to the newly deduced definition of 虛.

Results : 虛 is composed of 丘 and 虍, which means a tiger on a large hill. Here the meaning 'empty' is derived. In both cases, sleep disorders and heart-stiffness were the chief complai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ef complaints had occurred under 虛's circumstances. Therefore, Chijasi-tang was administered to two patients with a feeling of emptiness as a pathogenic factor. And the improvements were confirmed in both two cases.

Conclusions : In 15 provisions of *Shanghanlun*, 虛 is used as 'a feeling of emptiness' instead of the meaning of 'deficient' which is widely used previously, and clinically appears as 'emptiness after being hurt by someone'. This was applied to two cases.

It is believed that further study of other characters is needed because the meaning previously used may be different in 15 characters provisions of the *Shanghanlun*.

Key words : 虛, Sleep Disorders, Heart Stiffness, Chijasi-tang, *Shanghanlun*.

* Corresponding author : Sung-Jun Lee. 5-6, Apgujeong-ro 4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baekpal@naver.com

· Received :2020/12/14 · Revised 2020/12/24 · Accepted :2020/12/31

서론

한의학에서 陰陽, 表裏, 寒熱, 虛失 등은 대립적인 용어로서, 환자의 다양한 증상들을 구분 지어 사고의 편리함을 도와주는 아주 오래된 도구들이다¹⁾. 그중에서도 '虛'는 진단을 하거나 처방을 내릴 때, '實'과 대비되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이다.

'虛'는 역사적으로도 쓰임이 많고, 『黃帝內經』과 그 이후의 여러 한의학 저작들에서 꾸준히 쓰여 온 중요한 개념이고²⁾, 이에 대한 정의는 여러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의학 대사전』³⁾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虛'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正氣가 부족해 지거나 허약해진 것의 의미로서 '實'에 상대되는 말로써 사용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의학 개념들과 생리적 용어들은 『黃帝內經』에 근거하여 발전된 여러 한의학 사조에서 통용되었다.

그러나 『黃帝內經』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한의학의 사조와는 달리 『傷寒論』의 15字行은 이와는 궤를 달리한다⁴⁾. 14, 13字行은 『黃帝內經』의 색채가 많이 묻어 있지만, 15字行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텍스트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⁵⁾. 또한 한의학에서 매우 빈용되는 '虛'라는 글자는 『傷寒論』 15字行을 통틀어 6700여 개의 글자 사용 중 고작 5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虛'에 관한 정의와 연구들을 살펴보고, '虛'의 어원과 타 조문들과의 맥락을 바탕으로 『傷寒論』 15字行에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투약하여 호전된 증례

를 분석한 결과 『傷寒論』에서 '虛'의 의미는 기존의 '虛實'에서처럼 '實'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한의학 용어를 정의 내리고 있는 여러 사전을 참고하여 '虛'의 의미를 조사하고, 한자어 원사전에서의 '虛'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또한, '虛'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을 고찰하였다.

2. 『傷寒論』 판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텍스트는 『傷寒論』의 여러 판본 중 『康平傷寒論』이다. 『康平傷寒論』은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이 있기 전의 판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조문의 참입 순서를 알 수 있는 15, 14, 13字行, 嵌注, 旁注 등의 층차로 나뉘어 있어 『傷寒論』 본연의 모습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14, 13字行과는 달리 15字行은 『黃帝內經』의 이론과는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의학 체계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康平傷寒論』 15字行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3. 임상 연구

1) 연구 대상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인 한의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과 성남 한의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내원한 환자 중 梔子豉湯으로 진단받고, 투여하여 치료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에 사용된 임상 연구들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와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 방법

(1) 진단

이 등⁶⁾에 의해 제안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바탕으로 진단하였다.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의 병을 만들어 낸 핵심 원인에 대하여 진단하였고, 이를 가장 적절한 『傷寒論』의 七病-提綱-條文의 순서로 연결 지었다.

(2) 처치

『傷寒論比較』⁷⁾에 기재된 용량에 따라 1일 2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3) 평가 방법

치료 전과 중간 그리고 치료 후 환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주소증과 제반 사항의 호전 정도를 문진하였다.

본 론

1.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1) '虛'에 대한 정의

『한의학 대사전』³⁾에 따르면 '虛'의 의미는

(1) 八綱의 하나로서, 正氣가 부족해지거나 허약해진 것. 實에 상대되는 말

(2) 虛證의 준말로도 쓰임

(3) 虛脈의 준말로도 쓰임

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의학사전』⁸⁾에는 '虛實'을 정의하면서 '虛'에 대하여

(1) 인체의 正氣 부족이나 저항력의 감퇴를 말함

(2) 환자의 체질이 약하고 병리 변화가 약하게 표현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虛'에 대한 연구

한의학의 많은 학파와 이론서들의 배경에는 『黃帝內經』이 자리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 '虛'의 사용을 살펴보는 것은 '虛'의 의미를 파악하고, '虛'의 대표적인 용례를 살펴보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黃帝內經』에서의 '虛'에 대한 사용은 이 등⁹⁾의 연구에 따르면, 『黃帝內經 素問』에서 '虛'는 도합 262회가 쓰이는데, 각각의 용례와 쓰이는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靈樞』에서도 '虛'는 사용이 되나, 『素問』에서의 용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다.

살펴보면, '虛'의 의미 사용에 있어서, 『黃帝內經』에서부터 '부족하다'의 의미 사용이 가장 지배적이었고, 그 외 道教와 易

에서 기인한 의미들이 있고, 空과 虛脈을 일컫는 용례로 일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meaning of 虛 used in 『Huangdineijing』 from the paper of Lee et al.⁹⁾

	Meaning	counts
虛	Insufficient (不足)	227
	Mental care (情神養生)	4
	Big emptiness (太虛)	11
	Voidness (空虛)	6
	Weak pulse (虛脈)	-
	Simple name	-

3) 분석

사전적 정의로 보았을 때, ‘虛’는 개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 없고, 평소보다 부족한 상태가 되어 병에 이환 되기 쉬운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虛’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게 『黃帝內經』에서부터 그 용례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는데, 과거부터 현대 한의학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야마다 케이지¹⁰⁾는 『중국의학의 시작』에서 『黃帝內經』의 주요 저자 중 한 학파인 황제파의 병리학 이론의 핵심이 바로 ‘虛의 병리학’이며, 이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外因에 의한 질병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든 병을 內因論으로 귀납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론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黃帝內經』에서의 이러한 사용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 계속하

여 사용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傷寒論』 15字行과 『黃帝內經』의 이론 체계는 차이가 있고, ‘虛’가 갖는 중요성에 비하여 『傷寒論』에서의 용례는 단 5회에 불과하므로, 모든 질병의 內因論적 요소로서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黃帝內經』이나 다른 한의학 서적의 개념으로서 『傷寒論』의 ‘虛’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다른 서적의 개입 없이 『傷寒論』 조문 내에서 ‘虛’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虛’의 어원을 참조하고, ‘虛’가 포함된 조문 내에서의 개연성을 참조하였으며, 새로운 ‘虛’의 의미가 적용된 증례들을 통하여 『傷寒論』 내에서의 ‘虛’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康平傷寒論』의 ‘虛’에 대한 분석

1)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의 분석

『康平傷寒論』 15字行에는 ‘虛’가 총 5회 등장한다. 『辨大陽病』에 2회, 『辨大陽病 結胸』에 1회, 『辨陽明病』에 1회, 『辨陰陽易差後勞復病』에 1회 등장한다 (Table2).

5번의 용례에서 ‘虛’는 모두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Table 2. The provisions of using 虛 in 『Shanghanlun』

Chapter	Content
Diagnosis of Daeyangbyung (辨大陽病)	虛故也 虛煩不得眠
Diagnosis of Daeyangbyung Gyulhyung (辨大陽病 結胸)	脉浮虛而濡者
Diagnosis of Yangmingbyung (辨陽明病)	則胃中空虛
Diagnosis of Eumyangyeokchahunobokbyung (辨陰陽易差後勞復病)	虛羸少氣

2) 어원에 따른 분석

'虛'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說文解字』와 『帛書』에 수록되기 시작한 글자이다. 『說文解字』에 기록된 글자들은 Seal, 『帛書』에 기록된 글자들은 영문으로 Silk라고 표기된다.

'虛'는 虎(범 호)와 丘(언덕 구)가 합쳐진 것으로, '비어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Table 3). 다만, 虎는 虍(호피 무늬 호)로 축약되어 표기된다. 虍는 갑골문 시기부터 등장하는 글자로서, 『帛書』의 글자에도 그 원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虍의 아랫부분인 丘는 큰 언덕을 의미하는데, 고대에는 가구 수를 세는 단위로써도 활용되었다¹¹⁾. 제법 많은 인원이 모여 사는 언덕을 의미하였으므로, 큰 단위로 사용되었다. 이 또한 갑골문 때부터 등장하는 글자로서, 『帛書』의 丘를 보면 『帛書』의 虛에서 아랫부분을 구성하는 모습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al 연대의 丘, 虍, 虛를 보면, 글자의 구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虛는 글자 그대로 보면 '큰 언덕 위의 호랑이'를 의미한다. 『한자어원사전』에서는 고대 사람들이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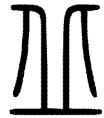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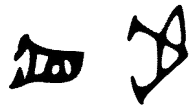



언덕에 굴을 뚫어 동굴 집을 만들어 살았으므로, '비다'라는 뜻이 나왔다고 한다¹¹⁾. 하지만, 이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虍의 의미를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동굴에 집을 만들어 거주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그로 인한 비어있음의 의미를 인체와 연결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큰 언덕(丘) 위에 호랑이(虍)가 있어 주변에 동물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고요함과 적막감, 공허감을 나타내서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虍도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주변이 공허해진 까닭은 호랑이 때문이니, 누군가에 의해 피동적으로 해당 감성에 놓이게 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상황과 감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므로, 인체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3) '虛'의 의미

따라서 虛는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떠한 대상에 의해 '공허함'이라는 감성에 놓이게 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Table 3. The ancient characters of 丘, 虍, 虛¹²⁾

	甲骨文(Oracle)	說文解字(Seal)	帛書(Silk)	Meaning
丘				Big hills
虍			-	A tiger with its mouth open
虛	-			A tiger alone on a big hill

3. 『康平傷寒論』 ‘虛’의 의미를 적용한 환자 증례 보고

본 연구에서는 2명의 환자에게 虛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적용하여 진단하였고, 辨病 診斷體系를 활용하였다. 두 환자에게서 모두 虛의 내러티브¹³⁾가 관찰되었으며, 이것이 주소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2명의 환자들은 각각 『辨大陽病』과 『辨陽明病』 梔子豉湯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진단하였으며, 유의미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두 증례의 인구학적 정보와 주증상, 중재, 경과를 다음과 같다(Table 4). 두 증례 모두 수면 장애를 주증상으로 하고 있고, 가슴 답답함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증례 1]의 경우 수면 중 가슴 답답함과 앞 가슴, 등 그리고 횡격막 부근의 굳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느낌이 들면 잠에

서 깨게 되고, 숨쉬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평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얇은 호흡을 하게 되며, 다시 잠드는 데에 1~2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수면 장애가 반복되는 기간에는 체중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증례 2]의 경우 입면 장애가 있고, 수면 중 잘 깨며, 한 번 깨면 잠이 들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새벽 3~4시 무렵에 잔다고 하였다. 또한, 증례 1과 마찬가지로 흉부의 문제가 있는데, 가슴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숨도 알아지고, 심장도 두근거리나, 심전도 검사 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심장이 두근거릴 때 두면부로 열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례 1]과 조금 다른 점은 [증례 2]의 흉부 문제는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위에 상술했던 虛에 관한 상황들은 두 증례에 모두 적용되는데(Table 5), 해당 상황에서 주소증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A summary of the two cases

	Case 1	Case 2	
Height (cm)	176	180	
Weight (kg)	66	78	
Age	50	36	
Sex	Male	Male	
Job	CEO	Counsellor	
Chief Complaint	Sleep Disorder - Parasomnias	Sleep Disorder - Insomnia	
Onset	24 years ago	15 years ago	
Symptoms	Waking up at midnight because of chest being stuffy	Having difficulty falling asleep until 4am	
	A feeling of tightness in the front of the chest and in the middle of the back.	Waking up often during sleep and it is hard to sleep again	
	Weight loss and shallow breathing occurs in these situations	Palpitations and chest tightness occur on a bad sleeping day	
Intervention	Chijasi-tang (梔子豉湯)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 (g)
	Chi-ja (梔子)	Gardeniae Fructus	6
	Do-si (豉)	Glycine Semen Preparata	7
	Dried herbs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bid		
Dosing period	Treated with Chijasi-tang for 45 days	Treated with Chijasi-tang for 60 days	
Progress	Frequency of waking up in the middle of sleep has been lowering	It became possible to fall asleep around 12am and easy to fall asleep again even if waking up during the night	
	Even if waking up, the patient starts to fall asleep again within an hour	Palpitations and chest tightness have been decreased by 60%	
	Feelings of tightness in the chest and back have been reduced by half	Frequency of a feeling of emptiness has been reduced	

Table 5. The narratives of the two cases about 虛

	Case 1	Case 2
Narrative of 虛	- The disease occurred first when feeling emptiness, loneliness, and resentment after forcibly separated from his girlfriend	Feeling lonely and emptiness since young because the patient has lived alone without his parents
	- Since then, after working hard or consuming a lot of physical energy, this feeling came into and it is similar to the feeling of exhaustion or emptiness. The patient strongly agreed that the disease occurred after this feeling.	After starting work, the patient was overwhelmed by these feelings every 2-3 days and he couldn't get sleep on those days The patient tends to work hard because it gets rid of those feelings. But after work hard, he feels more emptiness

[증례 1]의 경우 24년 전, 당시 여자친구와 강제로 헤어진 이후 억울함과 외로움, 공허감을 강하게 느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시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러다가 새벽에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 해당 주소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후 공부를 하려고 해도 주소증인 가슴 답답함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고시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한 이후에는 간혹 발생하다가, 4년 전에 주소증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다. 정신과와 심장내과에서 모두 특이한 소견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주소증이 발병하는 독특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텅 빈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소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직장에 입사한 이후에 일을 많이 하고 나면 텅 빈 느낌 또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몸을 많이 쓰고 난 이후에 드는 소진 된 느낌과도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를 한 단어로 규정하면 ‘공허함’에 가장 가깝다. 체력을 많이 소모한 후에 공허감이 들고, 그런 날에는 주소증이 여지없이 발병하였다. 24년 전, 주소증 발병 당시에도 이러한 공허감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환자의 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虛’를 진단할 수 있었다.

[증례 2]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고, 이른 나이 때부터 스스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특성은 못 하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다. 일주일에 3~4번 가량은 이로 인한 감정 기복에 시달리는데, 허탈함과 외로움, 공허감이 주

된 감성이라고 하였다. 10년 전부터 무속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면 장애가 시작되었고, 감정 기복이 있는 날은 주소증이 더욱 악화된다. 환자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일할 때는 이러한 감성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매진하는 편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면서 체력을 소모하고 난 후에는 여지없이 공허감과 허탈한 감정이 밀려오고, 수면 장애가 더욱 악화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심장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도 유발되었다. 따라서 [증례 2]의 경우도 환자의 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虛’로서 진단할 수 있었다.

두 증례 모두 梔子豉湯을 복용한 후, 주소증인 수면 장애와 흉부의 문제가 모두 호전되었다. 또한, [증례 2]의 경우에는 공허한 감정도 줄어들고, 감정 기복도 좋아졌다. 병의 원인이 되는 ‘虛’의 감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호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고 찰

『傷寒論』은 한약의 원류가 되는 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현대 한약의 뿌리가 되는 처방들이 등장하는 서적이다¹⁴⁾. 그러나 『康平傷寒論』에서 층차 구조가 확인되었고, 15, 14, 13字行의 시대적 참입 순서에 따라 『傷寒論』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⁵⁾ 등의 연구에 따르면 15字行과 14, 13字行의 의학 체계는 다르며, 15字行은 독립적인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의학이 발전해온 수천 년 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자의 의미와 쓰임은 변화를 겪어왔다. 시대적 차이가 있는 서적에 동일한 글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대의 언어 습관과 글자의 의미를 고려하여 서적을 해석하여야 올바르게 진의를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 陰陽-表裏-寒熱-虛實의 八綱은 중요한 진단의 도구로서 복잡다단한 인체를 간편하게 인식하고, 나누어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⁵⁾. 그러나 그 용이함과 다양하게 쓰이는 빈도에 비하여 『傷寒論』 15字行에서는 그 사용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虛'의 경우 5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같은 문장에서 '實'과 함께 사용되는 용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기존의 '虛'의 의미가 『傷寒論』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傷寒論』에서 '虛'와 '實'은 흔히 '虛實'로서 사용되는 대비적, 대립적 의미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虛'의 『傷寒論』 15字行에서의 의미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傷寒論』 15字行에서의 글자의 쓰임은 白話보다는 文言文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중국 고대로 갈수록 더욱 드러나는 문자적 특징이다. 한자가 가진 회화성 또한 점점 짙어지는데, 갑골문이 쓰이던 시기를 향해 거슬러 올라갈수록 한자의 어원 즉, 본래의 의미에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虛'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어원을 참고하였고, 한자의 기본 속성인 회화성에 집중하여, 보이는 글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인체에 병리적 용어로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虛'의 자형과 어원을 살펴보자면, 큰 언덕 위에 호랑이가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다소 공허하고 외로운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虛'를 구성하는 虍는 자형에서도 보이듯이 호랑이가 이빨을 보이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虛'의 어원이 주는 의미와, 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상처받은 이후에 발생한 공허감'으로 '虛'에 대한 가설을 제안하였다.

본론에서의 증례 2례는 각각 다른 병력을 갖고 있지만, 두 증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병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증례 1]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억울함과 공허감,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가슴 답답함, 얇은 호흡 이로 인한 수면 장애가 생겼다. 이 주소증은 이후에도, 몸을 많이 쓰고 나면 찾아오는 소진된 느낌과 공허감이 드는 날에는 여지없이 발병했다. [증례 2]는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면서 혼자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과 공허감, 허무감을 많이 느껴왔다. 이를 잊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감성들에 휩싸이게 되고, 수면 장애와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에 시달리게 되었다. 두 증례에서 주소증이 악화되는 상황은 '虛'로 축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활용하여 진단하였는데, [증례 1]은 병의 발생 과정에서 특정 감성에 집중

하고, 주소증을 점점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병을 만들고 있으므로, 陽明病으로 辨病하였다. [증례2]는 ‘虛’의 감성을 잇기 위해 더욱 일에 집중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더 큰 감성을 잇기 위해 더욱더 일하는 등의 대의 정황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므로 大陽病으로 辨病하였다. 『傷寒論』 15字行에서 ‘虛’가 등장하는 條文은 총 5개이고, 각각의 편제에서 梔子豉湯 條文들은 陽明病의 경우 ‘不得眠’, 大陽病의 경우 ‘虛

煩不得眠’ 등 수면장애와 관련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김¹⁶⁾ 등의 연구에서도 梔子豉湯을 『傷寒論』에 등장하는 수면 장애 관련 처방들 중 하나로 언급하였고, [증례 1]과 [증례 2]의 경우 주소증이 수면장애와 연관이 깊으므로 梔子豉湯으로 진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증례 1의 경우, 梔子豉湯 45일 간 복용 후 50%의 주소증 호전을 보였고, 증례 2의 경우 60일간 복용 후 60%의 호전을 보였다.

Table 6. The provisions of 梔子豉湯 in 『Shanghanlun』

Case 1	Case 2
㉔221. 陽明病, 脉浮而緊, 咽燥, 口苦, 腹滿, 而喘, 發熱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 若發汗則躁, 心憤憤反讖語, 若加溫針, 必怵惕煩躁, 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心中懊惱, 舌上苔者, 梔子豉湯主之	㉔76. 發汗後, 水藥不得入口,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惱, 梔子豉湯主之

梔子豉湯은 梔子和 豉의 2가지 약재로만 구성된 처방이다. 한¹⁷⁾ 등의 연구에서 상한론의 梔子豉湯類에 대한 고찰을 하였지만, 그 주치와 효능에 대해서는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 해당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논하지는 못하였다. 제갈¹⁸⁾ 등의 연구에서는 梔子豉湯의 사용 조건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으나, 虛煩不得眠과, 心中懊惱 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梔子は 苦寒한 성질이 있고, 淸熱해주며, 豉는 辛苦甘하고, 疏散宣透의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들로 인하여 열을 내려주고, 발산시켜줌으로써 수면장애와 가슴답답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¹⁹⁾ 등

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梔子豉湯이 가진 항 스트레스 효과 또한 있으므로 ‘虛’의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도 효과가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虛’라는 특정한 감성에 왜 梔子豉湯이라는 특정한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어원과 증례를 바탕으로 ‘虛’는 ‘특정 대상에게 상처받은 이후에 발생한 공허감’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정신의학에서 ‘공허함’이 원인이 되는 병의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분류로 우울증이 있지만, 『傷寒論』에서 우울증과 공허함은 카테고리가 다르게 분류된다. 이러한 면에

서 볼 때, 『傷寒論』의 辨病診斷體系를 이 용한다면, 정신과적인 부분을 보다 세분화 시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기존의 '虛'는 개체의 약함, 기력이 부족 함 등 '부족'과 '채워주어야 할 대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데 반해 『傷寒論』에서의 '虛'는 '공허감'이라는 감성으로써 사용된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이러한 공허감의 반대말은 '충실하다, 알차다'가 있는데, 이는 병리적인 의미를 도출해내기에는 힘든, 좋은 의미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八綱에서의 '實'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한 편중으로 병이 생기는 데 반해, 충실하고, 알찬 상태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알맞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傷寒論』에서의 '虛'는 '實'과의 대비적인 의미보다는 독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傷寒論』에서의 '實'에 대한 의미는 '虛'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 제안한 '虛'의 의미를 바탕으로 '虛'가 사용된 증례들을 모두 연구해 본다면, 각각의 상황에서 '虛'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傷寒論』 저작 시대의 한자 사용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이 부족하고, 다양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둘째, 虛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색 범위가 사전과 국내로서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虛에 대한 가설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례의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진전

되는 문헌학 및 문자학적 연구동향과 그에 대한 의학적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연구조건에서의 확인을 통해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춘 연구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康平傷寒論』 15字行의 虛의 의미를 고문자학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의미를 분석하고, 梔子豉湯을 투여하여 호전된 2개 증례 환자들의 병력 및 주소증, 투여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康平傷寒論』 15字行에서 사용된 虛는 기존에 널리 쓰이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임상적으로는 '특정 대상에게 상처받은 이후에 발생한 공허감'으로 나타난다.

2. 이를 바탕으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운용하여 한약을 투여한 결과 2명의 환자를 호전시켰다. 두 증례 모두 수면 장애와 가슴 답답함이 주소증이었는데, 투약 후 제반 증상들이 50% 이상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Reference

1. Moon ST, Shin YH, Gu BS. The Psychiatric Study of the Sang-Han-Lon. J. of Oriental

- Neuropsychiatry. 2000 ; 11(1) : 131-43.
2. Kang CM, Kang JS, Kim BS. Analysis of Differential Diagnosis System in Sasang Typology on the Basis of Greater-Lesser-Yin-Yang and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 ; 22(5) : 1125-31.
 3. The Grand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Seoul : Jeong-Dam. 2001 : 1716.
 4. Lee SI. A Philological Research on the Way of Medical Study of ShangHanLu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14 ; 22(2) : 1-13.
 5. Park KM, Choi SH. The comparative study of 『Sanghanron』 and 『hwangjenaegyong』 through historical study on 『Gangpyung·Sanghanron』 . J.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 9 : 263-300.
 6. Lim JE, Lee SJ. A case report form based on Shanghanlun six clinical patterns and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 ; 5(1) : 1-17.
 7. Lee SI.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204.
 8. The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Seoul. SeongBo-Sa. 2001 ; 214.
 9. Lee JW, Hong MC, Bae HS, Shin MK. Study of Philosophical Background of '虛' Described in Huangdineijing.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6 ; 20(4) : 766-83.
 10. Keiji Yamada. Chugokigaku no Kigen. Gwangju-si : Supernova. 2016 : 578-82.
 11. Ha YS. Th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origin. Seoul. 3-Publication. 2014 ; 100.
 12. Wikimedia Commons. 丘, 虎, 虛. Available from URL : [https:// commons.wikimedia.org/ wiki.](https://commons.wikimedia.org/wiki/)
 13. Kim JA, Lee SJ. Shanghanlun Diagnostic System : Exploring Value as Narrative Medicine by Analyzing Case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4 ; 6(1) : 1-25.
 14. Lee GJ, Bang JK. A study about the Gardenia fructus as an emetogenics in Shanghanlun. J. Korean Medical Classics. 2005 ; 18(3) : 106-15.
 15. Kim JH. A Comparative Research of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 based on Zhang Jie-Bin, Cheng Guo-Peng, and Jiang Han-Tun. J.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3 ; 26(2) : 47-59.
 16. Kim SU, Jung HJ. A Study on Treatment of Sleep Disturbance in the Books on Cold Damag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4 ; 27(2) : 99-120.
 17. Han SY, Kim DH, Kim SH. Studies on chizashitangliu in Typhoid theory. Published by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99 ; 7(2) : 385-98.
 18. Jegal KH, Kim YW, Byun SH. Analysis of herbal formulation about a series of Chijasi-tang in Dongeuibogam.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12 ; 20(2) : 177-86.
 19. Jung SI, Kim JH, Lee GE, Lyu YS, Kang HW. A Study of the Anti-Stress Effects of Chijasi-tang in Mice.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7 ; 28(3) : 183-94